사회적 차별·편견 해소 'F5, 새로고침'

장애체험키트 비대면 대여 · 장애 이해교육 진행

자원봉사 희망하는 개인 · 단체 연중 상시 모집

영암군은 2020년 비대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인 'F5, 새로고침'을 10월 20일 장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시기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교육기관에 장애체험키트를 비대면 대여, 장애 이해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체험키트는 지체장애 체험을 위한 소인용 휠체어와 이동경사로, 시각장애 체험을 위한 저시력 안경과 흰지팡이 및 점자도서, 장애유형별 에티켓 안내 배너, 온라인 OX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 체험을 통해 비대면으로나마 장애인들과 교감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야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한편, 영암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목욕봉사, 이·미용봉사, 밑반찬 나눔 배달봉사이며 영암군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열정적이고 가슴이 따뜻한 봉사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061-470-6750)

영암=조대호 기자

제2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

무안 몽탄 원사창 마을

무안군은 지난 22일 몽탄면 사창1리 원사창 마을을 무안군 제2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현판식에는 김산 군수와 김대현 군의회 의장, 김경현·이요진·이정운 군의원과 주민들이 참석하여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축하하였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환자가 살던 마을에서 안전하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마을이다.

군에서는 원사창 마을회관을 치매안심마을의 거점 쉼터로 활용하여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두가 체감 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치매걱정이 없는 안심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고 또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치매안심마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강진군, '소화기 암환자' 자조모임 열어

위암·대장암 환자 23명 대상…건강관리 · 힐링 걷기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20일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에서 위암·대장암 환자 23명을 대상으로'암 환자 건강관리 및 힐링 걷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순전대병원 암관리센터 백지현 팀장을 초빙해 암 건강관리 및 운동 요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대상자들 간 암 관련 정보공유 시간을 가졌다.

생태공원 힐링 걷기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오랜만에 갈대를 보며 여유롭게 걸었다. 몸과 마음이 힐링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은 11월 10일까지 4회에 걸쳐 암종별 자조모임을 진행한다. 수술 후 식이 관리, 스트레스 관리, 라탄 만들기, 운동교육, 힐링 걷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소 내 등록된 암 환자는 총 317명으로, 위암 66명(20.8%), 대장·직장암 43명(13.5%), 유방암 18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소는 지난 2014년부터 유방암, 위암·대장암 등 암종별 자조모임을 운영해 오고 있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되고 야외 걷기를 통해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함평군, 긴급생계지원, 30일까지 신청

함평군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중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한해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으로 25% 이상 소득감소가 확인된 가구로,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수급생계급여, 국가형긴급복지 등의 수혜 이력이 있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www.bokjiro.go.kr)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군은 대상자가 제출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통해 각 가구별 재산·소득 상황을 검토한 뒤 오는 11~12월 중 1회에 한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코로나 극복 가족프로그램 운영

10명 이내 소집단 규모 운영

영암군은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이후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10월, 11월 2달에 걸쳐 가족 프로그램을 10명 이내의 소집단 규모로 방역지침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가족상담은 푸드와 마술을 매체로 사용하는 푸드아트 테라피, 마술 가족소통 프로그램이며, 체험프로그램은 공예 및 요리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께하는 시간이 찌뿌둥한 몸과 마음에 여유와 활력을 주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학부모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좋았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